

개독교단협, 3.1절 97周 기념 연합예배

3.1만세운동에 관한 세미나도 가져

(사)한국기독교개독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등 3개 단체는 31절 제97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서 목사의 기도, 예정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목사의 성경봉독,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가 행 1:4-8 말씀을 본문으로 '독립정신과 그리스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기도시간을 갖고 '국가와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예정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사)한국기독교개독교단협의회 이사 이영춘 목사가, '일본회개 촉구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 '예정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환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된 예배는 예정개혁신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사)세계개독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만세삼창, (사)한국기독교개독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인사말씀으로 이어졌다.

양정섭 목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 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WCC나 WEA에 속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3.1절 연합기념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기념예배에 이어 세미나 시간에는 '3·1절 만세 운동과 기독교'에 대하여 재조명하여 보고 삼일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역사적 배경, 삼일절 만세운동의 발달과 삼일 만세운동의 기독교 교회의 전개과정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피해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삼일 만세운동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대표회장 이·취임예배

지왕철 대표회장 ... WCC 종교다원주의 막고 보수신앙 이어야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 2월 오전 11시 여전도회관에서 제97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신임 임원 축하와 회원교단 회합을 도모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한홍국 목사 사회로 예정 보수합동 증경총회장 김안 목사의 대표기도, 예정 사명지총회 총무 김보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예정 개혁신회 총회장 조은 목

사가 '자유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은 목사는 "예수님께서 2천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바로 성경"이라며 "우리로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통일, '한국교회와 한기보협', '3·1절' 등을 놓고 통성 기도했으며, 기독교대한자유교회 감독 이의

근 목사인도로 만세삼창한 후 신임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은 대한예수교소수성교회 총회장 정명구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임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와 전임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가 공로패와 취임패를 각각 서로에게 전달했다. 이후 지왕철 대표회장이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한국교회연합 증경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축사와 이범성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지왕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위해 WCC와 같은 종교연합주의 단체를 누군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보수신앙의 전통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이비 언론들과 사이비 이단간첩사 등에 대항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지 대표회장은 "이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교회본질회복 위한 다각적 사업전개

(사)예총연, 제11회기 1차 임원 및 총회장 간담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서울구 종로구 뉴극제호텔 두메라에서 제11회기 1차 임원 및 총회장 간담회를 갖고 예총연 산하 회원교단들이 하나 되어 협의회 발전은 물론 한국교회 개혁에 힘을 다짐했다.

김의경 목사(예정 열린총회 총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준수 목사(예정진리 보수총회 총회장)의 기도, 노영배 목사(예정 세계성령총회 총회장)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수 24:14-18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날 결단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삶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인 것처럼 믿음·신앙 사역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욕과 교만 자기 자신을 끊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또 "한국교회는 머뭇거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먼저라는 결단을 내린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예총연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삶을 본받아 한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나리와 민족', '위기의 한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예총연과 25개 총회



및 단체를 위하여' 합심기도한 후 이사장 이순주 목사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2부 간담회는 이하영 목사(예정아래총회 총회장)의 기도, 참석자 소개,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유영섭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총연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총회장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총연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기독교계 모습찾기협의회 회장 남윤국 목사는 "예총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회복 즉 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야 한

다"고 강조하고,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예총연은 이날 토의시간을 통해 신학협의회 주최 제13차 신학세미나, 제11차 춘계 수련회, 기독교계 모습찾기협의회 제10차 전국대회, 제2차 임원 및 총회장 간담회, 제12회 정기총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승용 목사(예정합동은총총회 총회장)의 폐회기도, 심의경 목사(예정합동예총총회 총회장)의 오찬기도 후 오찬시간을 갖고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교연 내방

조일래 대표회장 동성애법 등 당부 ... 한광옥 위원장 통일의 밑거름 당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금) 오후 한국교회연합을 내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환담하고 한국교회와 국민통합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한광옥 위원장에게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갈등 속에서도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 온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 애민 정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정부가 한국교회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협조



없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면서 "기독교 지도자들

이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독자유당 창당대회 갖고 공식 출범

비례대표 5명 목표로 1천만 서명운동 전개

기독자유당은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국회의원총선을 위한 첫 발을 함께 내딛었다.

기독자유당은 이날 당 대표에 손영구 목사(49세 신정현교회 은퇴)를 선출했으며, 이번 4.13총선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 예배는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 증경총회장 김동원 목사의 대표기도,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삼상 17:45-4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상 밖의 큰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 특별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창당대회는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전국 13개 시·도 당 깃발 입장을 시작



으로 출범의 빛을 올렸다.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 김자연 목사의 창당선언 선포메시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총장의 축사, 애국단체총연합회 집행위원장 박정수 장군의 격려사, 심만서명위원장 남기수 목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당대표를 선출하고

오는 4.13총선에서의 목표의식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독자유당에는 한국지도자협, 한기총, 한교연, 한전총, 한평행 등 교계 단체가 창당에 참여했으며, 5석 당선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세기총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취임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제4대 대표회장으로 고시영 목사가 10일 취임했다. 이날 제4차 정기총회는 1부 개회예배에 이어 회무처리, 대표회장 이·취임식, 잔무처리가 진행됐다.

이날 고시영 목사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시영 대표회장은 "공동체는 아름다운 목표지향성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국내 500교회, 해외 500교회 신하협력교회로 세우고 이를 위해 세계 지부를 확산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1천교회가 아니라 2천교회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특하신령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단체들이 이 계획을 빼가치지 않았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



장은 축사를 통해 "세기총은 이제 3년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사무실과 사단법인을 갖 추었다"며 "교회로 말하면 성전도 갖추고 회를 조직한 것과 같은 것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일을 더하기 바 린다"며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믿어 앞날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미기총 최나신 목사는 축사를 통해 "CTS를 통해 몽골에 다녀온 것을 보았는데 여러

가지 선교사업을 통해 세기총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거 같아 좋았다"며 "열심히 씨를 뿌 린 결과들이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 축하드 린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전했다. 박 서울시장은 "전 세계 한인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새로 대표회장이 되신 고시영 목사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 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알고 가감 없이 전해야

파루시아비전선교회

파루시아비전선교회(대표회장 김천기 목사)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지난 7일(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주강사로 나선 김천기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언'에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역설했다.

김천기 목사는 요한계시록 5장 9-10절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진노나 재앙, 심판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 보내신 기쁜 편지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이 은혜 받은 만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요한계시록 설교를 지주 하지 않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펼쳐 놓아주신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폭력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요한계시록은 바로 알고 가감 없이 분명·정확하게 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회복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권면했다.

파루시아비전선교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목적 아래 찬동하고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역에 뜻을 모은 단체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Love Letter 비전을 일으키고, 요한계시록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해석법을 제시하여 사랑의 아버지를 '폭력의 신'으로 추락시킨 하나님의 명예 회복비전을 일으키고자 전국에 지역본부장을 세우고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친 요한계시록 시즌 2 2~7차 세미나는 3월14일 천안성심교회, 3월21일 함평한광교회, 3월28일 문정남호교회, 4월4일 충주충현교회, 4월11일 해남예멘교회, 4월25일 제천성광교회에서 이어지며, 6월7일에는 중국인교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8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장총 '임직원 워크샵' 가져

제8회 장로교의 날 대회 등 논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낙선 목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임직원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한장총은 현동북아의 상황, 국내 총선정국에 대한 교회의 입장, 제8회 '장로교의 날' 대회와 제5회 '장로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6학년도 첫 특강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 '설교형태론' 주제 세미나



형태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사역자들을 위한 실재적인 설교와 관련한 메시지를 선포되었다.

임 목사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하고 설교의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패역을 쫓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이번 특강시간을 통해 학구열에 불타는 총회신학교 학생들과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난 7일(월)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6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 후 곧

바로 새학기를 여는 특강시간이 이어졌다.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를 강사로 하여 '설교

예하성부산신학교 2016학년도 개강예배

부산지방회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3일(목) 오후 7시 동신학교 대성전에서 2016학년도 개강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잘 배우고 가르치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학장 고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순남 교수(순복음부산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영남동지방회장 오정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갈 1:9-10 말씀을 본문으로 '신학도의 쫓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본분의 말씀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예하성부산신학교 이사장 한병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수진과 교직원들

개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예하성부산신학교는 3월 7일(월)부터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며 매일 경건회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한미음되어 기도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사람 될 것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유영욱 목사)는 지난 2월 29일(월) 오전 11시 해남 순복음예찬교회(담임 황광희 목사)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안에 유입되는 그릇된 복음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한편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타파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해 나아갔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병도로 목사(목포시내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순복음김갑의교회 김성호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

회장 김우만 목사(익금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전 6:11-14 말씀을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아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조남연 목사(송죽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장기지방회 준비와 교회와 지방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임 후에는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천안 살롬순복음교회 창립 감사예배

지역사회복음화 위해 헌신하는 교회 다짐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이충만 목사) 살롬순복음교회(담임 박안나 전도사) 창립감사예배가 지난 3월 5일(토)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복면5 신단로 477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지역사회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삼기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부회장 소영진 목사(신부순복음교회)의 기도, 총회 목대원 동기들의 은혜로운 특송, 증경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행 1:1-8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지방회장 이충만 목사(세종순복음교회)의 창립선포와 전도사 임명장 수여



및 취임패 증정, 교단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추계교회)의 권면, 황인태 목사(성신제일교회)와 교단여교역자국 자문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의 축사, 재무 임영신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헌금기도,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의 헌금특송, 살롬순복음교회 담임 박안나 전도사의 광고, 증경지방회장 류승창 목사(순복음여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헌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흥사회 자비량부흥성회 개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18:14)' 주제로 3일간 열려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2월 29일(월)부터 3월 2일(수)까지 3일간 부산 순복음빛교회(담임 조은혜 목사)에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18:14)"라는 주제로 3일간의 집회를 통해 헌신한 시대에 자기 영혼을 지켜내려던 성령충만함을 받아야하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간증들을 전해줌으로 문제와 아픔을 가진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집회기간 3일 동안 부흥사회 회원 목회자들과 부산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특송과 기도의 순서를 맡아 순복음빛교회가 영적지경을 더욱 확장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심전력으로 부르짖는 시간도 가졌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신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 안수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성회의 강사로 2월 29일(월):신재영 목사(부흥사회 회장), 3월 1일(화):양은래 목사(부흥사회 회계), 3월 2일(수):김건수 목사(부흥사회 상임총무)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WEA지도자대회 유치 복음의 본질 흐려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연대 배도의 길 조장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2월 28일(일) 오후 5시 서귀포 남원읍 순복음만남의교회(담임 안재홍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갖고 회원교회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1부 경건예배에서 안재홍 목사는 빌 3:12-14 말씀을 본문으로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과 좇아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고 "헌신한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 일체 일치하는 지방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2부 회의를 통해 기독교계 안에 WEA세 계지도자대회를 유치하여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복음적인 단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연대하여 배도의 길을 조장하는 현 시대적인 흐름을 잘 분별하여



말짚은 영혼들이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해 나가기로 다짐하였고 3월 28일(토)에 있을 제주드림교회 창립5주년 감사예배에 지방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극 참석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여 5년여 동안 열심히 달려온 회원교회를 따뜻

하게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회의 후에 순복음만남의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생선회와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지방회 소속교회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화합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교혼합은 엄청난 저주의 결과물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2월 25일(목) 오전 11시 남원중앙교회(담임 서정복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교회 일부 그릇된 욕망을 가진 지도자들의 정치욕에 의해 혼합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에 주의를 당부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마음의 자세를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상문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대하 18:1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사밋의 혼합주의의 결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종교혼합은 엄청난 저주의 결과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진력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

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월례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와 안건을 처리하고 남원중앙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지리산 온전에서 회원들이 함께 온전육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생명의 말씀 ■



유 홍 열 목사

· 예하성 강원동지방교회장
· 열린교회 담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위에 오신 성육신 하신 참 사람이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그 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전쟁과 큰 사건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실제적인 인물이고, 그 사건들도 모두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도 사실이고, 인류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도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 28:1-10)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15장에서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요새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법정에서도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목격한 증인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 숫자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바울 스스로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이 부활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고전 5:12-16)

죽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교리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더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헛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이요 이 부활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위에서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5:20)

농사를 지을 때에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이듯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의 열매로 거둢지게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5:55-57)

죽 부활의 구체적인 승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

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율법을 통한 죄의 기준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그췄는 것을 잃어버렸고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부활에 대해 길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5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5:58)

죽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길게 증거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중간에 흔들리고, 주를 위해 복음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이 부활에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 침몰에 빠질 수 있기에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과 주의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나하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주시는 시간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시대에는 어김없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구한말 민비로 인해 궁중에서부터 유행병처럼 번진 각종 굵은 반(飢)·상(喪)을 가리지 않고 만연했다. 일본인들마저 의아해 할 만큼 미신을 의지하는 시대는 심각하여 무속인들을 단속할 정도였다. 그만큼 무속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는, 흑세무민(黷世誣民)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생들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정신이 인생 자신들과 시대를 변화시켜 왔지만 무속인들의 점이나 굵에 의해서가 아니다. 250여 년에 이력(李爾)이 성호사설(星湖僞說)에서 왜 도참이나 무속적 행위를 경계하였겠는가?

지금은 고등종교 시대이며 정보화 시대이다. 사비니즘과 종교는 구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주만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동 정

CTS 사장 김관상 장로 선임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는 3월 4일 93차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 이민우 목사, 사장 김관상 장로(사진) 선임을 결의했다.

신임 사장 김관상 장로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TBC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KBS 기자, YTN 보도국장, 팍택대 방송미디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교수, 단국대 석좌교수, 한국정책방송원(KCTV) 원장을 역임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5주년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다. 지난 1991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기기증 운동이 시작됐다. 운동본부는 25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2시, 서울 신촌로 이현성 결교회 엘리움에서 감사예배 및 CCM콘서트를 개최했다.

여성 부흥사회 신임원 선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는 2월 18-19일 광주 예수마음교회(담임 박종수 목사)에서 33회 정기총회를 개최, 총재에 조석근 목사(사진·안경남부교회), 대표회장장에 김부열 목사(성원교회) 등 신임원을 선출했다.

나사렛대 임승안 총장 취임



나사렛대학교는 16일 오전 11시 교내 경건관 대강당에서 임승안 제7대 나사렛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20년까지 4년이다. 신임 임 총장은 숭실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와 드루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나사렛대 교수로 임용돼 교무처장, 기획실장, 신학대학원장과 제4·5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내 무속인 20만 명 시대, 대학생들까지 가담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는 '국운옹성기원'을 빌미로 '굿판'을 벌였다. '민회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굵판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2010년, 한민족정신지도자연합회(한정연) 주최로 국회에서 굵판을 벌인 후 5년 만에 또 벌어진 일이었다.

무속은 영적인 타락현상이고 정신적 황폐화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무속이나 미신은 이치에 어긋난 것을 잘못 생각해서 믿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무속은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경우가 허다하다. 조선말에는 민비(명성황후)가 수많은 무속인을 궁궐로 불러들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그 경비 조달을 위해, 폐관매지(賣官賣職)으로 국帑집서를

분란케 하며, 백성들까지 미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나라를 위기로 내몰았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은 망조의 길을 걸었다.

또 고려 말에는 승려들의 타락, 비행 세속화가 심해진 데다, 저급하고 미신적인 것이 가미되어, 혼란과 미망 속에서 나라마저 몰락되었다.

현재에도 불교와 무속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즉, 불교는 무속의 신관과 내세관에 영향을 주었고, 무속은 불교에 산신 신앙과 토맹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무불습합(巫佛習合)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무속인들의 신당엔 만연(만가)가 휘날리고, 이름도 ○○사, ○○암지라고 불려, 불교와 다름이 있다.

지난 2일 (사)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가

불교계 모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06년에 13만2,990명이던 무속인 수가 올해 대략 집계된 것으로만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무속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데, 워낙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지역별로는 구체적인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현상은 취업난과 대학 내 각종 무속 강좌 등에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무속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을 오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학 당국들은 무속강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학문은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무속이 과학적인가?

한 마디로 지성인이어야 할 대학생들과

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급하고 해괴한 무속행위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과 함께, 그 폐해가 심히 우려된다. 손쉽게 현찰을 벌 수 있다는 미혹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무속은 '민속문화'라는 포장을 뒤집어쓰고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민속문화제라는 명분으로, '산신제', '용왕제', '제수굿', '굿 대회' 등의 명칭을 붙여, 무속을 지방 행정과 주민들의 생활과 접목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며,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무속이 횡행하였다. 무속이 정권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위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입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 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

당자는 제출자의 인회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한다.
-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한다.
-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 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정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입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입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장제위원회 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장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84 예수교대한하

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점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망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속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 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지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이력 소개서
-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 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개정
2012. 4. 16. 일부개정
2013. 3. 5. 교단명칭변경
2015. 3. 3. 일부개정

- 등록마감 : 2016. 3. 31(목) 17:00까지
-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정익섭 목사
(010-8145-445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정 의 섭

목회자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금송아지에 취하지 말자



니체의 집안은 루터의 경건주의를 신봉했다. 할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교를 옹호하는 책을 썼고, 외할아버지는 시골 목사였다.

아버지 카를 루트비히 니체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4세)의 이름은 이 왕의 이름을 딴 것임)의 명으로 뉘른의 목사로 임명되었다. 아버지는 니체가 6세가 되기 전에 별세하였고, 어머니 ‘프란치스카’ 누이 ‘엘리자베트’ 할머니와 두 하녀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868년 프로테스탄트교 학교인 ‘슐포르타’에서 고전교육을 받았다.

졸업 후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문학학을 공부했다. 1865년 리를 교수들 따라 ‘라이프치히대학’으로 옮겼다.

1867년 10월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동안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게 되었고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으며 고전문학자 헤르만 로데와 우정을 쌓기도 하였다.

니체는 서구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은 퇴폐의 승화된 산물로 보고, 그의 저작들을 통해 허무주의와의 투쟁을 한 것이다. 그는 금욕주의적 이상에 의해 최고의 가치로 정립된 것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허무주의’란 용어를 썼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수동적 허무주의 시대, 즉 19세기에 실증주의가 출현함으로써 종교적·철학

적 절대성이 이미 해체되었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시대라고 보았다.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기초와 전통적인 도덕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제의 무목적·무의미 등의 느낌만이 남았다. 무의미의 승리는 곧 허무주의의 승리이며, 따라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욕주의적 이상의 쇠퇴와 존재의 본래적 무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삶에 의미를 주는 대리 절대자를 찾으리라고 보았다.

당시 등장하던 민족주의가 그러한 불길한 대리신이고 민족국가는 초월적 가치와 목적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경쟁자에 대한 살육과 영토의 정복은 보편적 형제애와 민주주의·사회주의의 것발아래 진행된다. 니체의 이러한 선견지명은 날카로운 것이었던 말인가?

이 모든 일들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세속의 불의와 부정직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추구함을 거부하는 일련의 신앙의 표현이었단 말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자,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 또한 그러한 거짓들과 타협하며 융통성을 말하는 자, 신앙 양심은 물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참이라고 외치는 자, 나아가 그 거짓을 참이라고 옹호하며

무리지어 다니는 자들, 부정한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는 자들,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는 신앙양심까지도 팔아도 괜찮다고 하는 자 등은 물론 우리 모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2:5)”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대의 충신과 간신, 지도자와 사술자 등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깊이 고뇌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존중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사순절,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부활을 기다리는 수난보다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금송아지에 취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서도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잊은 채, 현대의 금송아지에 취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등을 외치고 있으니 이를 어찌 부활과 재림 신앙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는가? 금송아지에 취해 벌이는 축제는 사탄에게 미소를 안겨줄 것이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지는 의문을 갖게 하지 않는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고전 10:7)

‘이스터 트리 점등식’,트리 불빛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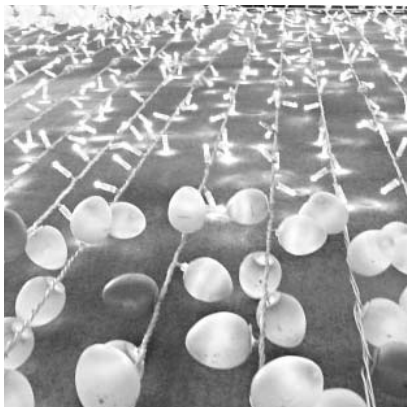
사)하이패밀리 양평 W-Zone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 양평 W-Zone에서는 지난 3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한 이스터 트리의 점등식을 갖고 트리의 불빛을 밝혔다.

이스터 트리 달기 캠페인은 하이패밀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온 기독교 문화운동이다. 부활절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나다가 삶은 계란 하나 나눠 먹고 끝나는 것이 안타까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듯이 부활절에 이스터 트리를 설치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교회들이 동참했다. 참여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계란조형물에 부활의 메시지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글로 쓰게도 해서 성도들이 한 명씩 나와 LED 전구에 계란 조형물을 결합시켜 추리를 완성하고 이스터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고 알려 오기도 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분반공부 시간에 계란 조형물을 활용한 꾸미기 활동으로 연결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스터 트리 설치 방법은 계란모형의 플라스틱 조형



물을 전선에 부착되어 있는 LED램프에 끼워서 트리형 또는 벽걸이형 등 원하는 모양으로 설치해 주면 된다. 이스터 트리를 외부에 설치했을 때 성도들 뿐 아니라 만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트리의 불빛에 신기해하며 트리의 의미를 묻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부활절 트리 구입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하이패밀리(전화 031-772-3223)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루터대 2016년 입학식, 지적 호기심에 응답하는 학교

인성교육원과 국제교육원 개설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옥)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체플관에서 2016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루터대 신입생은 102명으로 신학과 13명, 상담학과 26명, 사회복지학과 32명, 언어치료학과 31명과 편입생 9명이 입학했고, 14명의 대학원생(신학과 3명, 상담학과 2명, 언어치료학과 9명), 편입생 3명이 입학했다.

김영옥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여러분들이 루터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지만, 왜 선택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좋은 학교는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좋은 교수 역시 좋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루터대학교는 종교개혁자 마틴루터의 정신을 이어 받은 대학이며, 루터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루터의 정신처럼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인성교육원과 국제교육원을 개설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숨겨진 인성과 국

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에 응답하는 학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3.1절 97주년 기념예배 및 구국기도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

갈보리영성훈련원(원장 권오덕 목사)은 지난 3월 1일 오전11시 갈보리교회에서 3.1절 97주년 기념예배 및 구국기도회를 갖고 국가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명희 목사(임마누엘기도원 원장) 사회로 백요한 목사(예정교회)의 기도, 김은지 목사(금촌갈보리교회)의 성경봉독, 이선 목사(대기중 이사장)의 이사야 4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소리 같이’라는 제목

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이명자 목사(예명교회)의 한금기도에 이어 이인행 목사(예본교회)의 ‘구국을 위한 나라사랑의 호소말씀’, 배국자 제장, 김영식 목사(푸른초장교회) 3.1절과 구국메시지, 권오덕 목사(구국기도회장)의 ‘나라위한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메시지 전파와 김영화 목사(총일교회)의 인도로 구국을 위한 통성기도 후 이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3월 1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이광석 목사
순복음교회



회계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서울중부지방회



회장 김순자 목사
회복의교회



총무 강관구 목사
행복한우리교회



서기 김정필 목사
하늘부흥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김영호 목사
구로별관교회



총무 이후관 목사
순복음신대교회



재무 신은수 목사
반석교회



회계 김홍식 목사
건동교회

서울동부지방회



회장 김경철 목사
침사영교회



부회장 정유기 목사
순복음기독교교회



총무 오성현 목사
온혜교회



서기 이현욱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재무 회계 박영국 목사
말씀과 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덕영 목사
신리교회



부회장 박정자 목사
성로교회



총무 서기 이기성 목사
함께꿈꾸는교회



회계 박은혜 목사
임마누엘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부회장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총무 최은구 목사
순복음선한목자교회



서기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재무 전희재 목사
열린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최철민 목사
순복음초대교회



부회장 임종현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총무 이복길 목사
임지순복음교회



서기 윤우현 목사
호평순복음교회



재무 신종철 목사
순복음예수성령교회



회계 유석근 목사
에버다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김남수 목사
부은교회



부회장 김기인 목사
분일순복음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물안교회



총무 박종필 목사
오성사목교회



서기 김홍식 목사
순복음전망교회



재무 최정호 목사
순복음감동교회



회계 정미자 목사
섬교회

경기동부지방회



회장 김동문 목사
동산중영교회



총무 최남순 목사
영광교회



재무 회계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는혜사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인산은혜사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사리교회



서기 김용희 목사
당산은혜사리교회



재무 이재환 목사
인천은혜사리교회



회계 윤환근 목사
광명은혜사리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김용학 목사
성령대무교회



총무 김영환 목사
순복음영성교회



서기 오성복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재무 임현식 목사
복음의동산교회



회계 오성순 목사
순복음주성교회

경기북부지방회



회장 김장수 목사
예수교회



부회장 박정신 목사
문선교회



총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서기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문 목사
은혜의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명교회



회계 김동일 목사
성령대무교회

일산지방회



회장 서영조 목사
서일산교회



부회장 서기 박미자 목사
빛의사목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일산별관교회



재무 회계 이진우 목사
주인의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정애란 목사
김포성교회



총무 강영호 목사
마침순복음교회



서기 최종남 목사
김포순복음초대교회



재무 이석재 목사
서일산순복음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송현일 목사
임마누엘순복음교회



부회장 홍영광 목사
은혜의사목교회



총무 이창도 목사
인천대순복음교회



서기 송준호 목사
순복음사랑의교회



회계 김지현 목사
새소망순복음교회

강원동부지방회



회장 유종필 목사
열린교회



총무 신장길 목사
성지순복음교회



서기 최정희 목사
성광교회

강원서부지방회



회장 박성욱 목사
명강교회



부회장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총무 김종애 목사
군영순복음교회



회계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복기 목사
대전영광교회



총무 이미순 목사
한소영교회



서기 석인근 목사
군인교회

충청지방회



회장 차홍식 목사
이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안종규 목사
침사영교회



총무 김영관 목사
순복음온혜교회



서기 회계 이인복 목사
송죽교회



재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지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이종만 목사
새소망순복음교회



부회장 오영진 목사
신부순복음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가교회



서기 김순구 목사
사랑이넘치는교회



재무 이금자 목사
부활교회



회계 노우석 목사
명인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민철 목사
한소영교회



부회장 노부철 목사
산성순복음교회



총무 오성훈 목사
청주성령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 박지선 목사
평애원침례교회



서기 진환백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회계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김장수 목사
부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
심산순복음교회



총무 오병호 목사
순복음이현교회



서기 김 응 목사
새희망교회



재무 김은수 목사
우정순복음교회



회계 신병철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회장 권우석 목사
정원순복음교회



부회장 황영연 목사
은혜의명강교회



총무 류지현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기 유성수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재무 신종철 목사
김해순복음교회



회계 류정진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경기도지방회



회장 오경덕 목사
순복음한미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

광주지방회

회장 김양인 목사
목장제 일교회부회장 장영기 목사
순복음 연합교회총무 서기 회창식 목사
순복음 복원교회재무 회계 조은주 목사
순복음 감동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최병진 목사
이산은혜교회총무 김상연 목사
성광순복음교회서기 김희수 목사
은혜사순복음교회회계 최광우 목사
순복음 재일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고한진 목사
새벽별교회부회장 김백 목사
장남은혜교회총무 양현 목사
장복순복음교회서기 김현 목사
순복음 꿈이있는교회재무 회계 심혜진 목사
임마누엘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김상 목사
순복음 장전교회부회장 최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총무 장현 목사
고흥순복음교회재무 회계 서은자 목사
순복음 은송교회

호남지방회

회장 유영욱 목사
강진순복음교회총무 서배로 목사
목포시내교회회계 현기봉 목사
장계순복음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상 목사
순복음 예수나눔교회총무 안현 목사
순복음 만남교회

총회직수지방회

창립 15周 안수집사, 권사 취임예배

영남동지방회 동울산순복음교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담임 성기찬 목사)는 지난 9일(주일) 오후 4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동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안수집사, 권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지인 일꾼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전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신희섭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살전 1:2-4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며 앞으로 세움 받은 일꾼들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울산순복음교회 담임 성기찬 목사의 집례로 서약, 안수위원 최용운 목사, 박기만 목사, 오경덕 목사, 성기찬 목사들의 안수기도, 성기찬 목사의 공포 순으로 예식이 거행되었다.

이어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동울산순복음교회 담임 성기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창립 15주년을 맞아 안수집사 김세원, 권사 이명자, 고순자 취임을 통해 충성스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하심"을 감사드렸다. 임직자 대표 김세원 안수집사는 부족함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충성스런 일꾼일 될 것을 다짐했다.



정기지방회, 현 임원 유임키로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1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광양교회(담임 유영근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고흥송곡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전라지방회 사회의 특송, 김영식 목사(회장, 순복음 장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식 목사는 램 5:1 말씀을 본문으로 '의를 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의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목회하지'고 강조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 시행 반대" "동성애법 허용 반대"와 5/16일의 제65차 총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지방회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광양 은혜와 진리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백영자 목사의 개회기도, 서기 임종호 목사의 회원점명에 이어 회순통과와 전회의록낭독, 임원보고, 총무와 회계보고가 이어져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회부처리를 마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증경회장들의 추천과 지방회원의 동의로 현회장 김영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1년간 더 봉사하기로 했다. 1년 동안 지방회 결속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회원의 다짐과 함께 신임 임원들의 인사로 정기지방회를 모두 마쳤다.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

호남지방회 순복음동산교회

호남지방회(회장 유영욱 목사) 순복음동산교회(담임 정병래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14일(월) 오전 11시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역사회 복음화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화하겠다는 각오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배로 목사, 서기 민순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성호 목사(순복음검교)의 대표기도, 서기 민순복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유영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왕상 8:1-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어야하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성전의 결요망보다는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신앙이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자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지방회 회계 현기봉 목사의 봉헌기도, 이어 광주지방회 증경회장 주영명 목사와 호남지방회 증경회장 조남연 목사의 축사에 이어 순복음동산교회 담임 정복래 목사의 인사 및 광고, 호남지방회 증경회장 김우만 목사의 축도로 은혜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사본향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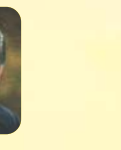
일시

2016년 3월 27일(일) 오후 4시

장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햇빛중앙교회(담임 김승자 목사)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63-1 전화 : 02-928-4968, 010-3709-4968

대회장
이광 목사성교
예연 목사준비위원장
이광 목사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준비위원장
김승자 목사부위원장
장승우 목사이사
김기형 목사이사
김위식 목사이사
송현 목사이사
손대영 목사이사
정찬희 목사이사
고중권 목사이사
서훈갑 목사이사
오선미 목사이사
하석수 목사이사
임은선 목사이사
김태지 목사이사
김용희 목사

주제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대회조직

교문

예영수 목사,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 김기형 목사, 송현 목사, 이원일 목사

대회장 - 이광 목사

준비위원장 - 장승우 목사

준비위원

김광호 목사, 차준환 목사, 박영성 목사, 손대영 목사, 하석수 목사, 임은선 목사, 서재복 목사, 김미리 목사, 김태지 목사, 김용희 목사

공동회장

고경수, 김남식, 김미리, 김병성, 김장성, 김용현, 김철이, 김연성, 김명배, 김장철, 김철중, 김상배, 김성중, 김한구, 김중배, 김진경, 공정석, 맹을길, 박영성, 박요한, 박익수, 변관봉, 백경진, 백순량, 신숙자, 서성현, 서수원, 서재복, 서봉진, 이권재, 이봉구, 이원호, 이규일, 오종산, 이태주, 이상배, 이승주, 이종택, 이석주, 이호현, 오종산, 유영석, 유진학, 윤병학, 윤영수, 윤예중, 육남식, 안병성, 안영신, 우진목, 조요한, 정대배, 정성일, 정태익, 정대희, 장영기, 정윤경, 장바울, 전동진, 주종철, 조규재, 조요한, 최현국, 최창일, 최선근, 한승용, 하태관, 황상호, 황근국, 한을규, 한일우, 황대영

지도위원

김국현, 김기순, 김능혁, 김국미, 김인영, 김은영, 김용희, 김지현, 김대현, 박정자, 김계순, 김경옥, 김상모, 박미혜, 박민식, 박성일, 박종윤, 박태영, 변영옥, 박종윤, 박민기, 송호성, 이규애, 이관봉, 이무용, 이상철, 이신배, 이상운, 이성표, 이상순, 이원숙, 이영옥, 이윤숙, 이창용, 오연교, 유권태, 윤이희, 원종성, 정종상, 정석희, 조관순, 조규애, 조도형, 조영훈, 장영순, 장순석, 정호진, 황경수

총무

김장재, 김경숙, 김대근, 김양진, 김윤식, 김중필, 김관수, 김기봉, 고재민, 권대경, 계승창, 남태현, 남주석, 문인숙, 민경순, 박기래, 박정자, 박종수, 박종문, 박현준, 박지현, 박정철, 박찬일, 박 창, 배옥선, 배경재, 서상운, 서수원, 송형자, 손경애, 오준호, 오성숙, 이경조, 이기인, 이명순, 이상철, 이순자, 이상수, 이영근, 이영일, 이윤호, 이윤교, 이창용, 이현숙, 이현우, 이윤교, 유재현, 임두환, 오세훈, 안영순, 안미경, 어귀선, 영동선, 안진화, 안병희, 조경애, 조영만, 조문호, 정기봉, 정대남, 장종수, 장은영, 전수용, 최상현, 최광열, 최미숙, 최경기, 채승민, 최천봉, 허수복, 허도경

합동총무

김병국, 김대길, 김원주, 김명은, 김광교, 김대근, 권오열, 서호준, 신석만, 성경숙, 성재현, 손정석, 신영관, 이남현, 이서광, 이준옥, 이철우

이훈식, 이훈우, 이한나, 민건일, 임희표, 안성영, 유일석, 윤보을, 육숙자, 연규석, 오수숙, 오순환, 임정태, 조은희, 조예순, 조완석, 정대중, 전기민, 한석자

출발총무 - 고중권 목사

서기 - 손대영 목사

회계 - 오선미 목사

강사 - 정찬희 목사, 김태지 목사, 김용희 목사

※ 분과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 : 하태관 서기 : 차요한, 김지현, 권대경, 조영민, 최천봉, 황수용

예배분과 위원장 : 고중권 서기 : 손대영, 김경재, 정찬희, 오선미, 박현준 서기 : 이명순, 김성배, 김순선, 이영숙, 이현숙, 성은혜

홍보분과 위원장 : 유영석 서기 : 김기봉, 김경희, 김주해, 박정경, 오순환, 유일석

통역분과 위원장 : 정찬희 서기 : 배경태, 정현숙, 임영주, 이차규, 양영희, 이성표

사회분과 위원장 : 이호현 서기 : 안영신, 고재민, 권정규, 박종수, 방승학, 이순자

여성분과 위원장 : 임은선 서기 : 하석수, 김경숙, 문인숙, 이윤숙, 이현숙, 조지라

재정분과 위원장 : 오선미 서기 : 김남식, 이한나, 이순자, 오성숙, 최남숙, 황수자

주관 : 사단법인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4길 3, 원석빌딩 210호 전화 : 02-706-2970~1 FAX : 02-706-2990

목양 포커스

대부분 결핵을 비롯한 합병증을 수반하는 에이즈환자는 국공립요양병원이 전담해야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요양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를 입원시키도록 사실상의 규정을 바꾸었다.

이 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2015년 12월 23일 개정)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염병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에서는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으로 규정한 것은, 제1군 감염병(폴리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등), 제4군 감염병(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여기에서 에이즈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5월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볼수록 다수에겐 전파될 위험이 없으므로, HIV 감염인을 전염성 질환자로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제도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국민사무소 주최로 "HIV/AIDS 감염인 장기요양

병원/시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그 다음 달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에이즈 환자의 일반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권위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상황과 복지지원 실태를 알아보고, HIV/AIDS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규정 개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만약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와 의료법 제89조에서, '제1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중 97% 이상은 노인요양병원으로 대부분 요양병원이 에이즈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결핵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이런 남성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을 허용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요양병원 일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병원 종사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반인(3천967명), 환자·보호자(674명), 요양병원 종사자(996명) 등 총 5천6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 96%가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 병원 종사자들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성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는 동성애에 의한 것이다. 에이즈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하여 일반 환자들과는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에이즈 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처사는 매우 부당하며, 온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절대다수의 노인환자들의 인권과 건강문제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사정이 이런데도 에이즈 환자를 입원을 범으로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는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미루고,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거나,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속출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일반 환자들과 특히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개연성이 높은 에이즈환자와의 격리를 속히 서둘러 국공립요양병원 이틀 전담해야 마땅하다.

한국교회연회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아대책 제7회 지역후원이사회 회장단 세미나 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열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7회 지역후원이사회 회장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손봉호 이사장, 유원식 회장과 기아대책 전국 지역후원이사회 회장단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 11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기아대책의 주요사업과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기아대책 손봉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10억 명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며 “후원이사들이 고귀한 사역을

더 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는 베다해 기아대책 홍보대사의 축사로 문을 열었으며, 미국 기아대책 캐리 에드먼드 회장이 ‘It's time to go together’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기아대책은 지난해 주요사업으로 우간다 소묘티의 어린이개발센터(CDP)사업 종료, 네덜란드 긴급구호 사업,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 태권도 교실 운영 등을 꼽았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행복한만찬콘서트’ 실시, ‘희망월드컵’ 개최, ‘필란트로피클럽’ 확대 등을 소개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2016년도 변함없이 동역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떡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은사 받아 사랑으로 변화 되어야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 조광동 목사, 새사랑분노 해결 세미나서 강조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가 주최하는 새사랑 분노 해결 세미나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여전도회관 14층 강당에서 ‘분노는 해결할 수 있다’ (참 16:32 약 1:20)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사 조광동牧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기독교인은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 이상 더 큰 은사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또 “기독교인은 누구나 사랑의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분노의 해결 방법도 사랑이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갈등이 쌓여 분노가 되며 이 분노 지리에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갈등이 해결 된다”며, “사랑 이상 더 큰 은사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목사는 끝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열려하는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이는 기독교가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랑 은사를 받아 사랑 전도사가 많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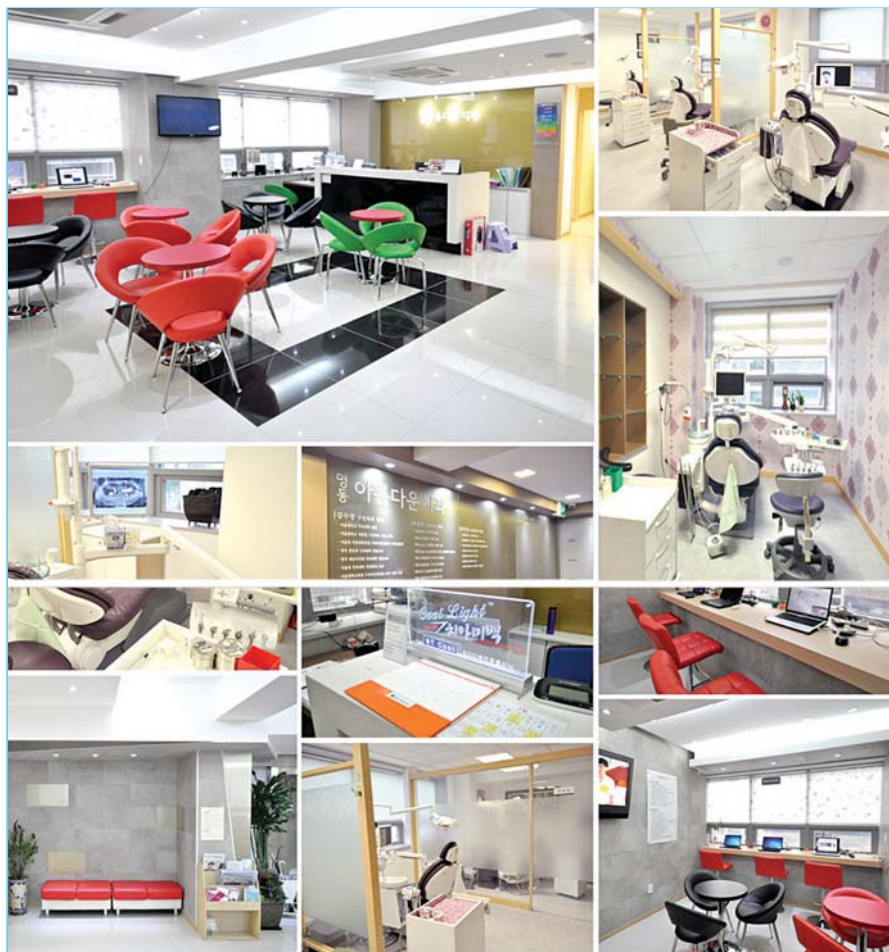
홀트, 국내입양가족 사진 및 동영상 공모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영)가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후원, (주)호텔롯데의 협찬으로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 공모전 ‘이름다운 행복’의 작품을 모집한다.

작품 주제는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가족’이며 응모자격은 입양 가족으로 입양자 및 이들을 중심으로 친구,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총 52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부문에서 대상(1명)과 우수상(2명)에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입상자 7명에 20만원씩 수여하며 사진 부문은 대상과 함께 대상(1명)과 우수상(2명)에 각각 50만원과 20만원, 입상자 5명에게 상금 10만원씩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를 참조하면 된다.



명동아름다운치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시는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778-1224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50112-중-9266호

“니제르 아이들에게 ‘학교’를 선물해 주세요!”

월드비전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 아프리카에 학교를

“꿈을 이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또 제 아들과 함께 나눔의 현장을 찾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나눔의 가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뛰어 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가 네티즌들과 함께 아프리카 니제르 아동들을 위한 학교 짓기 캠페인 ‘꿈꾸는 학교’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니제르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후원금 총 1억 4천 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3월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일시 및 정기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와 네티즌들이 함께 만들어갈 학교는 아프리카 니제르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토로디(Torodi) 마을에 위치한 코파디에 초등학교이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5개의 움막교실과 5개의 벽돌 교실이 전부로 비가 오거나 모래바람이 부는 날은 수업조차 어렵다. 344명의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제대로 된 책걸상도 부족해 흙바닥에서 수업을 듣기 일쑤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 전액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니제르 아동들을 위해 튼튼한 교실과 책걸상, 깨끗한 식수시설과 화장실을 만드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월드비전 유지태 홍보대사는 “제대로 된 교실이 없는 니제르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 학교를 짓자’는 결심을 했다”며 “특히 저희 부부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만의 자랑이 아닌 함께한 모든 분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지태 홍보대사에 앞서 2005년부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나눔을 실천해 온 김효진 홍보대사는 “제 아이가 생기고 보니 아이들에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며 “저희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할만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



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월드비전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는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속적으로 학교 건축을 통한 나눔 실천에 앞장 서 왔다. 2009년 유지태 홍보대사의 미얀마 북동부 코강지역 유치원 설립을 시작으로 2011년 결혼한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는 결혼 축의금을 기부해 미얀마 피자다곤 지역에 2개의 초등학교를 건축하였다.

또한 결혼 1주년에는 함께 미얀마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는 미얀마에 이어 남수단 학교 짓기를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캠페인 참여, 홍보 촬영금 전액 기부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 교육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영점기도와 교패까지 붙이는 전도

저는 대전의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운선 집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간을 드려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순전하게 복음이 전해질까’, ‘어떠한 지혜의 말을 통하여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크고 작은 고민이 날마다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공동부 목사님의 초청으로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은 ‘가족세트 전도법’을 통해 영점 있는 전도지역을 하고 계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실습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세트 전도법’은 사업장이든 길거리에서 만나는 영혼이든, 누구든지 만나는 모든 영혼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하고 영점기도문을 따라 하도록 하며 그 자리에서 교회 출석까지 약속받는 전도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목사님을 보고 처음에는 살짝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영혼들이 화를 내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냥 뿌리치고 가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염려와는 달리 많은 영혼은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영점기도문까지 따라 하였고 교회 출석까지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점 후에 바로 교회 교패를 다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만지 않는 자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만나는 영혼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이 전도법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강권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실 때 성령님께서 영혼들 가운데 위로하시며 인

간의 본성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의지하여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세트 전도법은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전도법이라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은 항상 “영점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점기도문을 읽을 때 실습을 나간 모든 동역자가 영혼의 구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혼자 전도할 때 쉽게 느낄 수 없었던 큰 감동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영혼 가운데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세트 전도법은 점점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영혼을 짧은 시간 동안 울음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법입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 뿐 아니라 오늘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애써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라는 교회로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주사랑교회 임운선 집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사랑의 손, 섬김의 손, 월드뷰티핸즈(WBH)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WBH)가 지난 3월 4일(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종합뷰티서비스를 시작했다.

월드뷰티핸즈는 K-한류와 함께 K-뷰티를 통한 다문화, 북한동포, 노숙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소외계층을 비롯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소외계층을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는 미용분야 전문교수들과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창립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역 노숙자 미용봉사 활동을 비롯 베트남 원주민 뷰티서비스를 실시해온 월드뷰티핸즈는 연차사업으로 3월 9일 해동는 마을 노숙자 뷰티 봉사와 함께 창립총회 후 첫 사업으로 3월 19일 신촌 우리캐리리에서



비전코리아29와 한국사아미박물관연합회와 함께 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한한 미소를 찾아 주는 2016 한비방 웃음전을 통해

말게 웃는 미소 사전컨텐츠를 위한 헤어, 메이크업과 피부, 네일 등 미용봉사를 지원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등·하굣길 실종예방수칙 포스터’ 배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 주력”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나며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진, www.missingchild.or.kr)은 신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실종예방수칙 포스터’를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과 5,982개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실종예방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따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아이의 실종예방을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하굣길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함께 안전한 길을 정하고, 혼자 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도움을 청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주변 인이나 부모로부터도 위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나 인근 경찰서, 또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스티커가 부착된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종예방수칙 포스터에는 이렇게 등·하굣길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5가지 수칙을 담았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가캐릭터 ‘라바’를 이용해 일러스트로 제작한 것이 특징으로, 가정에서도 학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김진 소장은 “신학기는 새로운 친구 및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이 가득할 때”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녀

가 등·하굣길에 겪을 수 있는 실종상황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 교사와 함께 실종예방수칙을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총 27,739건의 실종아동·장애인 신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아동은 19,4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며 가족들과의 외출이 많아지는 3월에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예방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88년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시작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실종가족 지원 및 실종예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실종·유괴예방수칙 포스터에 등장하는 ‘라바’ 캐릭터는 ㈜투바엔의 업무 제휴로 제공받았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새소망교회

復祝活



담임목사 **진등용**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 041)545-4540, 010-7406-454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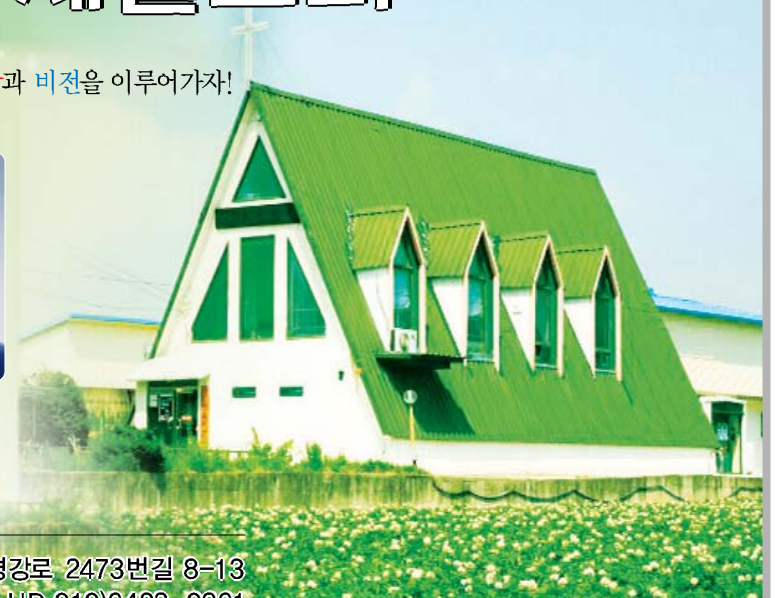
영동제일교회

復祝活

표어 :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가자!



담임목사 **김용덕**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73번길 8-13
033)652-1881 HP 010)6432-086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신교회

復祝活

기도하는 무릎, 순종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담임목사 **김인찬**

주일 예배 • 1부 07:00 • 2부 09:00
• 3부 11:00 • 4부 19: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80번길 16
T.043)234 - 184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거제중앙교회

復祝活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왕상 3:10)



담임목사 **김창영**

주일에배 •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일에배 • 오후 7시 30분
새벽에배 • 오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4604 ☎055)633-5039, 070-4107-5039
카페: <http://cafe.daum.net/fggca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가평순복음교회

復祝活



담임목사 **조남영**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가평순복음교회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새말옛로 6번길 3 Tel 031-582-283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양제일교회

復祝活



담임목사 **김양인**

주일에배 • 1부 : 오전 9시 • 2부 : 오전 11시 • 3부 :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062-973-0857, 010-3822-4667

목양시평

한국교회연합 //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정치권의 막말 파문, 남의 일만은 아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정부특보를 지낸 여당의 국회의원 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대표를 겨냥해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고 한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나라 국회의원의 품격과 언어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넘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사람이 한 여성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자 듣기 거북한 비속어를 남발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의 욕설과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도, 여야 가릴 일도 아니지만 상대방을 향해 도를 넘는 악담과 욕설,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지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지 기성세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의 고질병을 그대로 방조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코앞에

다가온 총선 정국으로 예민해진 상황이라 해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품격은 찾아볼 수 없고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승자 독식이 판치는 정치관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이런 저질 국회의원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국회 윤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징계를 한다지만 기껏해야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제 식구 감싸기’식이다 보니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회의를 시장 잡배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저질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정치인, 인하무인격으로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저질 국회의원들을 가려내는 일은 공천심사위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욕설과 막말이 우리 정치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교회도 깊이 반성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도를 넘는 언사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전도에도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말을 가려함으로써 성직자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마15:11)고 말씀하셨다. 비난과 욕설 등은 언어나 기보다 배설에 가깝다.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인간은 귀 때문이 아니라 입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기를 바란다.

CTS기독교TV, 공식 ‘카페 채널’ 오픈

시청자와 다채널 소통 강화, 오픈 이벤트 진행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SNS를 통한 시청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에 이어 ‘CTS 공식 카페(이하 CTS카페)’를 오픈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CTS카페(http://cafe.daum.net/ctskorea)는 △CTS를 방문하는 사람들 △CTS의 다양한 행사 현장 △방송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제작 현장 △다양한 간증 및 토크 △주부들을 위한 육아TOON △재능기부를 통한 말씀 캘리그라피 이미지가 매주 업데이트된다.

CTS 홍보팀 정용혁 팀장은 “이번 CTS카페 오픈은 기존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공간을 갖게 됐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여성 성도들을 위한 특화된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카페’ 오픈과 관련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카페 가입 후 오픈 이벤트 소식을 다양한 SNS채널 중 하나에 공유하면, 추천을 통해 총 42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채널 오픈 이벤트는 이



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 ‘CTS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문의 : 02-6333-1051)

한·대만 정·교계지도자초청 만찬, 평화메달수여식

평화적 통일 위해 적극 협력 다짐

지난 7일 63B/D 백리향에서 개최된 “한-대만 정·교계지도자초청 환영만찬 및 한반도평화메달수여식”에는 김영진 준비위원장과 장상 전국무총리, 고종욱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총재, 이상형 구세군사관,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한대만-문화경제협회 이상열 회장, 강성제 한중일문화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대만측에서는 임죽송 회장내외와 부주석인 오영만 회장, 정신화 회장, 리문종 회장, 임수범 집행위원장 등 20여 명의 한국 방문 대만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영진 전장관은 환영사에

서 지구촌시대를 맞아 사랑에 큰 빛을 진 대만의 각 계지도자들과 함께 매우 뜻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 감사하며 특히 대만의 임죽송 회장님과 세분의 부주석일행은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앞으로 한-대만의 우의와 연대는 물론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메달을 수여하고 앞으로 한 반도평화와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다며 임회장과 3인의 부주석 일행

에게 송기학 이사장과 함께 평화메달을 전했다.

임죽송 회장은 감사인사말에서 “이렇게 뜻 깊은 환영만찬회와 특히 분에 넘치는 평화의 메달을 수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 남북관계개선에 특히 경제교류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만의 총통경제지분위원장인 임죽송 회장은 김영진 전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교, 경제,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대만친선 방분단’을 구성한 미영구 총통과 최근 당선된 여성총통과 왕금평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한-대만 친선교류의 밤’을 제안했고 김영진 전장관은 이를 흔쾌히 수락, 4월중순경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다.

사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21세기 최대의 핵무기 위협은 다른 곳이 아닌 한반도의 북쪽에서 무섭게 몰아쳐 오고 있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월 7일에는 위성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탄 실험도 강행했다. 3월 10일에는 남한 전역 타격을 목표로 하는 5백km 사정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유엔에 대해 오히려 대남 핵공격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대규모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전쟁위협이라 몰아 부치면서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광란을 일으켜 핵미사일을 남쪽으로 실제 발사라도 하는 날이면 이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력의 대응 공격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삼시간에 비침한 종말적 핵무기 침상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하여 김정은 집단의 핵 공갈 협박에 달래고 협상을 해 볼 수도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김정은 폭압 집권과는 어떠한 평화와 화해적 약속도 모두 핵무기와 미사일 비밀 개발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명백히 드러났

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엔과 한·미 안보 동맹은 저들 거짓 사기 집단의 실질적인 핵 폐기 행동이 증명되기 전에는 어떠한 유화책과 대화 노력도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같은 전면적인 대결 양상의 와중에서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가장 첨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죽음의 공포냐, 불안의 극복이냐? 적의 무차별 핵 위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피난처를 찾아 나서야 할 처지다. 그나마 저 김정은의 광란적 핵 공갈과 위협 아래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담담히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핵 공포 속에서 위로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길 뿐이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원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주님 안으로 피난하시길 강권한다. 그로하여 저 무서운 핵 공갈협박 시대에 영혼의 위로를 누리시고 부활 복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미디어 금식’으로 교회학교에 새 바람을...

새봄이 왔다. 동장군의 위풍도 살포시 고개를 내민 꽃망울 앞에 피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건만 우리의 어린 보배들은 죽은하가만 하다. 바로 ‘스마트폰 오염시대’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23.6%이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11.8%에 달한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수준이라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초·중·고생 142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가 중독 위험 군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초·중·고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제미있는 볼거리’에 취하게 되면 학업과 교회

예배 등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학습 욕구는 급속히 사라진다고 사립미디어교육센터 권정희 소장은 말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른바 ‘미디어 금식’이다. 가정에서의 TV 끄기, 스마트폰에 깔아둔 각종 어플리케이션 삭제, 스마트폰 보기 절제를 위해 예매나 학습 때는 이에 보란 주머니에 넣어놓는 방안, 휴대폰 자체를 구형 ZG 폰으로 바꾸어 주는 등 스마트폰 과용을 절제 하자는 것이다. 또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대신 부모들이 나서서 가정예배나 손편지쓰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갖도록 힘을 기울이는 방법도 실천하자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파괴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미디어 흥수 시대에 ‘미디어 금식’ 운동을 벌여 가족이나 침체한 교회학교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바람을 일으켜 보자.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일 5

●본보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http://woonaksanpodo.com>



청정지역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해 저온 착즙한

‘운악산포도즙’ 판매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운악산 포도’는 산간 고랭지 포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과 향이 높은 ‘우수한 포도’입니다.

저희 운악산포도작목반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운악산 포도’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저온착즙기’에서 착즙, 밀봉·포장하여 소비자 분들에게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효능 : 피로회복, 피부미용 ※목회자님·교회·단체 특별우대



아래의제품은전체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1박스(택배비 포함)
28,000원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50봉 1박스(택배비 포함)
43,000원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2박스(택배비 포함)
50,000원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50봉 2박스(택배비 포함)
80,000원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3박스(택배비 포함)
80,000원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50봉 3박스(택배비 포함)
120,000원

주문·상담

031-584-3806, 010-2225-3808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3시

계좌번호 : 농협 351-0663-7414-03(예금주:이봉기)



운악산 포도즙
하판리 영농조합법인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5번지

전화 : 031)584-380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조용목 목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전화 031)443-3731~2, 446-9184 / 홈페이지 : www.gntc.net

조용목 목사 TV, 라디오 방송설교

조용목 목사의 설교말씀이 기독교TV(CTS)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비롯, 기독교 각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전국 전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시청(청취)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TV(IPTV) : QOOK TV(KT) 채널 888번

방 송 국		일 시		
TV	CTS / 기독교 TV	매주 토요일	오전 11:30~12:00	(30분간)
		매주 수요일	오후 4:30~5:00	(30분간)
	CBS TV	매주 월요일	오후 3:20~3:50	(30분간)
	기독교 방송(수도권)	(FM 98.1MHz)	매주 일	오후 9:35~10:00 (25분간)
	기독교 대구방송	(1251KHz)	매주 일	오전 11:30 ~ 12:00 (30분간)
	기독교 광주방송	(999KHz)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기독교 전북방송	(1314KHz)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기독교 부산방송	(FM 102.9MHz)	매주 금요일	오전 5:20~5:30 (10분간)
	기독교 청주방송	(FM 91.5MHz)	매주 화요일	오전 7:00~7:10 (10분간)
	기독교 강원방송	(FM 93.7MHz)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라디오	기독교 영동방송	(FM 91.5MHz)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기독교 대전방송	(FM 91.7MHz)	매주 일	오후 9:00~9:30 (30분간)
	기독교 포항방송	(FM 91.5MHz)	매주 일	오전 10:30~11:00 (30분간)
	기독교 경남방송	(FM 106.9MHz)	매주 일	오전 11:30 ~ 12:00 (30분간)
	KCB 필라 기독교방송(필라델피아 지역)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of Philadelphia	매주 수요일	오후 2:30~3:00 (30분간)
	미주 기독교방송(뉴욕 지역)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INC	매주 화요일	오후 1:30~2:00 (30분간)
	시카고 기독교방송(시카고 지역)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매주 수요일	오전 6:30~7:00 (30분간)



① 일반전화 - 신문의 전화 : ☎ 1570, 사서함 번호 7200번 축복의 전화 : ☎ 1570, 사서함 번호 7201번
② 휴대전화 - 신문의 전화 : ☎ 02-1570, 사서함 번호 7200번 축복의 전화 : ☎ 02-1570, 사서함 번호 7201번

*전국 어디에서나 1570번(휴대전화 02-1570)을 누르면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사서함 번호(7200번, 7201번)를 누르면 신문의 기도,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회장 김상용 목사

“여호와와 기(旗)를
세우라” (출 17:15)

목표

• 10만 성도 채우자!

실천사항

1. 성령충만으로 권능받자
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3. 기도로 하늘문을 열자
4. 범사에 감사하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주일에배

• 1부 : 오전 7시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2시 • 저녁예배 : 저녁 7시 30분
• 교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185 TEL : (043)279-9900 FAX : (043)279-997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림벤헌교회



담임 정 부 용 목사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는

주일에배

• 1부 : 오전 5시 • 2부 : 오전 11시
• 3부 : 오후 2시 • 4부 : 오후 7시 30분

홈페이지. www.daelimbethel.org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79
Tel. 02)845-5095, Fax. 02)845-5096